

# 감 사 보 고 서

## 1. 감사개요

산학협력단의 2010회계년도(2010. 1. 1 ~ 2010. 12. 31)에 대한 회계와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적절성을 검토하여 산학협력단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감사들은 회계집행에 관련한 분야는 총무과에서 별도 자체적으로 2008년 ~ 2010년까지 내부감사(2010. 11. 23 ~ 2010. 11. 30)를 진행한 사항을 감안하여 산학협력단의 설립취지와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간접비의 예산편성·운영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시스템은 적절하게 운영이 되었는지를 점검 하였으며 산학협력활동에 대한 유인적 개선책의 이행이 되는 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 2. 운영실태

### 가. 조직 및 업무분장

구분	교원	행정사무관	일반직	기성회직	계약직	합계
인원	2명	1명	4명	3명	8명	18명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장(교수 1명), 산학협력부단장(교수 1명), 산학협력과장(행정사무관 1명), 팀장 4명(6급 3명, 계약직 1명), 일반직원(8급 1명), 기성회직원(7급 1명, 8급 2명)과 자체 계약직원 7명(팀장급 1명 미포함)으로 되어있다.

사무분장상의 업무구조를 보면 산학협력단장은 업무전반을 관장하면서, 산학협력사업의 유치 및 연구과제의 수주 및 관리 등 외부활동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의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학내의 연구활동 및 사업진흥에 환원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산학협력 및 연구진흥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학협력과장은 산학협력단장과 부단장의 정책결정 자문의 역할 및 자금출관납으로써 행정지원을 총괄하며 내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기타 일반 팀장이하의 직원들은 사무분장에 의한 정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력기획팀, 산학협력사업팀, 연구지원팀, 지식재산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적달성을 위한 조직체계는 전문적으로 세분화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관련 업무에 대한 유경험자들이 주요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내부적인 행정시스템은 효율적으로 판단이 된다.

직원에 대한 행정운용 시스템을 판단하여 볼 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7 : 8)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으나 2008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계약직원의 신분의 안정화 방안(보상체계의 지적사항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은 현재까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비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성과보상금체계의 수립, 시간외 수당의 현실화, 복지포인트제도 실시 등에 의하여 정규직원과 상대적 차별성이 있었던 보상적 체계가 구비되었으나 기본보수는 현재 2년째 동결되어 있다. 물론 산학협력단 자체적으로 공무원 기능10급을 기준으로 한 계약직원 인건비 책정기준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자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위원들에 대하여 우리대학교의 행정구조에 따른 행정인력의 부족을 감안하여 설명·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업무의 지속성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도 신분의 안정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 나. 전산관리시스템

2009년 감사에서 ERP시스템과 신연구지원시스템의 연동성 부족에 대하여 지적한 감사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였다. 2010년 산학협력단에서는 사용중인 회계시스템(더존 - ERP시스템, 신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하여 각 운영 프로그램별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사실과 연동체계를 구성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정확성이 아직 검증되지는 않고 있으니 지속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실제로 결산작업 내용의 연동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작업이 수행되고 있음도 확인한 바, 업무적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한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결산작업이 전산처리로 신속하게 처리되어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 산학협력단 수익구조

산학협력단의 2009년 대비 2010년 수익구조를 대비하여 점검하면 산학협력

수익이 418,59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금 수익은 28,021천원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 설립의 근본적 목적 및 취지는 산학연계형 사업의 추진 및 이에 대한 수익의 확보이므로 산학협력 수익의 증가는 산학협력 활동의 활발성에 기인한다고 보아 만족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우리대학교에서 가장 취약했던 지적재산권 수익의 증가가 2009년 대비 1,760% 성장세를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항이다.

지원금 수익의 경우 2009년 대비 수익결산 내역을 검토하여 보면 우리대학교의 최대 국가사업인 누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09년 수익비용 2,641,917천원이 감소한 상황을 볼 때 실제 누리사업비를 제외하고 판단하여 보면 약 2,613,896천원의 지원금 수익이 증가한 결과가 도출되어 양호하다고 판단이 된다. 하지만 재정구조 외에 중요한 것은 우리대학교가 가지는 대외적 이미지로써 누리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산학협력단의 운영은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 방향에서 접근하고 이에 따른 결과가 기술이전사업 등 일부에서 도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학협력사업의 결과 판단은 수익의 결과로써만 도출되는 것은 아니나 산학협력단의 수익확대는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적 측면에서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은 더욱 경주되어야 한다.

#### 라. 기술이전 측면

지식재산권의 업무분야는 전문업무분야에 속하며 2009년 특허전문가파견사업에 따른 특허전문가 활용에 따른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내부행정과정의 프로세스는 지식관리업무와 연구지원업무가 별개로 처리되어 있어 교원들의 연구결과물이 지식재산화하는 경향이 매우 드물어 업무의 연계성 측면에서 약점을 도출하고 있다. 대학은 가장 풍부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연구와 기술을 별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성과산출물이 매우 적어 업무의 개선이 요구된다. 물론 연구와 기술이 반드시 연계되지는 않으며 교원의 연구과제를 연구담당자 또는 지식재산관리자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전문분야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교육과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상호연계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기술이전분야는 향후 지식기반사회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 확대되리라 생각이 되며 산학협력의 가장 주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사. 산학협력단 간접비 운영의 측면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수입은 2009년 전년도 대비 8.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출은 41.3%의 증가율을 보였고 적립금은 1,320,000천원에서 2,000,000천원으로 51.5%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익금 대비 간접비 적립금을 보면 산학협력단 자체적으로 자금의 적립을 통하여 자립적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2009년 지출액 대비 지출액의 증가에 대하여 검토하였을 때 투자활동비(기계기구취득비)의 지출이 전년대비 19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학협력비가 32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관리비 또한 99백만원이 증가하였다. 내역은 기술이전 활성화에 따른 교원보상금(기술이전금의 60%를 교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연구장려금 및 대응자금 등으로 지출하여 산학협력사업투자 및 공헌교원에 대한 지출의 증가가 있었고 일반관리비는 여비교통비, 세금과 공과금, 홍보비 및 기타일반관리비 등에 10백만원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이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사업활동을 위한 투자비(사업유치 활동에 따른 여비증가, 기술이전 부가가치세의 확대, 대외협력과 지원 및 산학협력기관 방문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등)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간접비 지출의 증가세는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사업 추진에 대한 경비와 교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경비집행에 대한 문제는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나, 산학협력을 위한 내부 추진사업이 부재하다는 것은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내부적으로 향후 새만금 관련 대형사업을 위한 준비자금을 적립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대비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준비작업 활동을 위한 당해연도 기반사업에 대한 투자와 기타 산학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수행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적시되어 있지 않음은 경비의 적립보다 주요한 산학협력기반을 구축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1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에서는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들도 잘 인식하고 있겠지만 사업의 추진의 주체는 교원과 산학협력조직이며 자금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의 의식이 제일 주요한 원동력이므로 이 원동력을 순간 순간 도출시킬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효율적인 산학협력활동을 모색·추진하여야 한다.

### 3. 결론

2010년도 산학협력단의 감사는 2009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이행여부와 세부적인 회계서류의 검토나 감사는 총무과에서 기시행하여 우리대학의 실정에 맞는 산학협력체계의 구성과 변화에 대하여 부응하는 산학협력단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결산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전산관리시스템은 이원적인 구조로 구분되어 복식형태로 운영되는 ERP시스템과 단식회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술연구비시스템을 상호 연동성을 부여하여 현재의 수기업무의 비중을 완화하여 업무가 전산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지만, 물품관리적 측면에서는 전산화 연동체계가 부족한 측면이 보인다. 현재 물품 관리는 전산화된 데이터망을 구축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자재 및 집기 비품의 관련 내용이 ERP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아 별도 수작업을 통하여 이를 재산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회계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부가가치세나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에서 발생하는 회계문서의 내용이 지출관을 거쳐 세무담당자로 이체되면 다시 지출관이 재지출하는 문제가 있었다. 물론 지출결산액에 재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부가세 등 세무 예수금에 대한 재집행 문제는 타 대학의 행정사례 등을 수집하여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회계담당자는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징수세액을 지출행위로 인식하고 세무담당자는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을 하였지만 감사자의 입장에서는 중복행정으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술이전측면에서 판단할 때 주목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었지만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팀과 지식재산관리팀의 업무적 상호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원의 연구지식은 단순한 연구지식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시장성, 경제성, 특수성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특허 등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대의 산업은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기반사회를 추구하고 있으며, 생산과정의 Feed back, 신수요의 창출 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므로 연구과제 보고서로써 업무의 종료가 아닌 지식재산권 창출로 연계되

이 산업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판단된다. 물론 단시간에 개선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노력은 경주되어야 한다.

수익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2009년 대비 2010년 수익률이 소폭 향상되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2009년 대형 국책사업이었던 누리사업(5년간 250억 규모, 2009년 상반기 26억 규모)의 종료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소형규모의 국책사업과 연구용역등의 수주율 향상 등에 힘입은 결과로 파악되며, 2009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산학협력단의 재정규모와 별개로 수익구조가 너무 보조금 수입으로 단순화되어있던 부분이 기술이전 수익에서 160백만원의 괄목한 성장세를 보인 것은 가장 눈여겨 볼만한 재정수치였다고 보인다. 산학협력사업의 가장 주요한 구조는 수익구조 또는 수익액수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산학협력사업의 내실성으로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산학협력의 형태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이 주요 관점이다. 보조금 수익은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와도 연관이 되어 일시적인 재정구조의 변화는 발생하여도 근본적인 수익구조의 창출과 변화는 내부에서의 활동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내부 수익구조의 변화전조는 좋지만 보조금 수익 즉 국책사업의 발주에도 노력해야 한다. 2010년에 특별한 국가정책사업은 없었지만 향후 발주되는 산학융합단지조성사업이나 Linc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판단된다. 대형 국가정책사업이 재정구조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대학교의 대외적 이미지 홍보에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처 및 전략에 대한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지출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산학협력단의 업무상 지출내역은 외부적 활동의 다양성에 비례하여 집행액은 상승하였으나 이에 대한 과정에 대하여 적정과 부적정을 논하는 것보다 실제 근본적인 부분에서 산학협력단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접근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군산대학교의 산학협력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군산대학교의 현 상황은 타 대학에 비하여 사업 브랜드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들의 산학연계활동도 미진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재정지출현황에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반기에 이뤄지고 있는 산학협력협의회 경비 지원 등은 긍정적 사례로 판단되며 이러한 체질개선사업이 병행되어 추진되었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금년 감사에서 적시되는 사항은 수익구조가 다변화되는 측면과

회계구조의 연계시스템의 부분적 완성 등 다수 긍정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였으나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즉, 행정의 효율성 측면의 개선,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업무의 연계성 측면 등 보완의 필요성이 도출되고 있으며, 관련 업무와 연계된 타부서의 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존재하므로 산학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재정, 교육, 인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좀 더 완성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업무관계자는 산학협력단의 성공적 경영이 우리대학교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향후 더 많은 노력과 활동을 요청하며 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2011. 3. 22

감 사 군산대학교 화학과 교수 유 수 창



감 사 공인회계사

김 영 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